



어쩔수가없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 수가 없다’가 추석 명절 기간, 누적 관객 230만 명을 넘어서고 영화제 최고 권위의 상인 토론토국제영화제에서 ‘관객상’을 받는 등 흥행하고 있다.

영화는 인공지능(AI)과 자동차 등을 이유로 장기 근속한 회사에서 해고당한 가정과 그 가족이 그리는 씁쓸한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제지 회사에서 25년을 근무하다 돌연 해고 통보를 받은 주인공 만수(이병헌)가 1년 넘도록 재취업을 하지 못하면서 고난을 겪는 모습은 광주·전남을 비롯, 우리 사회에 만연한 극심한 취업난과 겹쳐 보인다.

◇‘살인’에 이르는 영화 속 무한경쟁, 현실은 더 힘들어=영화 속에서 만수는 1년 넘도록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면서, 결국 취업 경쟁자를 살해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 단 1명을 뽑는 자리에 경쟁자 수십명이 몰리니 극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현실은 어떤가. 만수처럼 1년 넘게 취업 문을 두드리는 이들이 부지기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청년층의 졸업 후 첫 일자리카지 걸리는 평균 취업 준비 기간은 11.3개월이다.

최종 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 더 길어져 평균 1년 4-5개월이 걸린다. 이마저 경기 침체로 고용 자

박찬욱 감독 영화 ‘어쩔 수가 없다’로 본 극심한 취업난 실태

50대 중반에 명예퇴직을 한 윤모(59·광주시 북구 용봉동)씨는 추석 연휴 기간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 수가 없다’를 보고 “남 일 같지 않다”고 한숨을 쉬었다.

윤씨는 2년간의 취업 준비 끝에 올해 초 식품 생산 공장에 들어갔다. 윤 씨는 “100세 시대 70대 중반까지는 일을 해야 하는데 재취업이 쉽지 않아 영화 속 주인공이 남일같지 않았다”며 “노후 준비가 가장 큰 걱정이라 정년 연장도 필요하고, 재취업할 수 있도록 일자리가 마련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소외되는 근로자들

300인 이상 기업 41%
‘AI·자동화 시스템’ 도입
10년 뒤 일자리 14% ‘뚝’

‘취업 문턱’ 왜 이리 높다

만수처럼 1년 넘게 도전
신규·재취업도 ‘바늘구멍’
‘1년 내 취업’ 60% 그쳐

체가 줄면서 재취업자들이 대기업 등 양질의 직업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은 갈수록 낮아지는 상황이다.

HR테크기업 인크루트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정규직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한 기업은 64.6%, 2021년 75.4%, 2022년 68.3%, 2023년 68.2% 등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채용 규모가 한 자릿수 채용(0명)이 45.0%로 전년(33.3%) 대비 11.7%p 급

증했으며, 두자릿수·세자릿수 채용은 각각 4.5%p, 7.1%p 감소했다.

영화 주인공처럼 비슷한 직종의 경력직 재취업도 쉽지 않다. 주인공인 만수는 관련 직종의 재취업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쉽지 않았다.

재취업을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직장인들이 2만 4031명(2023년 기준)에 달했다. 또 국가자격증을 취득해 재취업에 성공한 평균 비율도 41.1%에 머물렀다.

이러다보니 같은 직종에 재취업하지 못한 이들은 영화 속 인물 고시조(치승원)처럼 서비스업, 판매업 등으로 연결되는 모양새다. 전공을 살리고 업무 깊까지 따져 가며 취업을 할 수 있는 확률은 ‘바늘구멍’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국 55~79세 고령층 경제활동인구는 최근 1010만명을 넘어섰다. 비슷한 재취업 경력자들과의 경쟁도 버거운데 현실에서는 청년층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는 분위기까지 형성되면서 취업 경쟁은 더 심화되는 상황이다.

◇기술 발전, 지역 쇠퇴도 소외되는 근로자들=영화 속 주인공 만수의 사례처럼 AI 자동화 도입으로 근로자들이 실업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전망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 된 지 오래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만수가 취업 경쟁자에게 화분을 던져 살해하려는 장면(왼쪽). 만수의 취업 경쟁자들의 이력서(오른쪽 위)와 살해하려던 경쟁자와 맞닥뜨린 만수.



300인 이상 기업의 41%가 ‘AI 기반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했고, 5년 내 확산률은 7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인공 지능(AI)이 산업 현장에 도입될 경우 10년 뒤에는 일자리가 약 14%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더욱이 호남권(광주·전남·북)은 지난 상반기 전국에서 유일하게 취업 등 고용지표가 악화된 지역으로 꼽혔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중 경제 동향 모니터링 결과’와 ‘지역경제보고서’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 광주와 전남, 전북 등 호남권 월 평균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3만 5000명이나 감소해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하면 감소폭이 1만명이나 확대됐다.

◇여전히 높은 취업문=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8월 광주·전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광

주의 8월 고용률은 61.7%이며 취업자 수는 78만 7000명, 실업자는 1만 8000명으로 실업률은 2.2%를 기록했다. 15~64세 고용률은 64.9%로 1.1%p 떨어졌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일자리’ 취업률은 증가하는 반면 청·장년의 취업은 막막한 실정이다.

반면 사회 초년생인 15~29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1.9%에 불과했고, 30대도 18.4%에 그쳤다.

전남 지역은 고용 여건이 더욱 악화되는 추세다. 취업자 수는 100만 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000명 감소했고, 고용률도 66.0%로 전년 대비 0.6%p 하락했다. 실업률은 2.1%로 1년 전보다 0.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취업자 중 60세 이상 비중은 35.8%로 전 연령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양재희 기자 heestory@

“메뉴 통일해”… ‘불친절 식당’ 이번에는 진도

식당 측 “무조건 저희 잘못”
진도군, 친절운동 전개키로

전남 지역 음식점에서 또 ‘불친절 식당’ 논란이 터졌다.

최근 여수시 음식점 등지에서 불친절, 비위생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김영록 전남도지사까지 나서서 개선을 약속했는데, 불과 2개월도 안 돼 유사한 상황이 재발한 것이다.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창맨’ (구독자 8만 여명)을 운영하는 유튜브가 여수친구와 함께 진도군의 한 횡집에서 전어구이, 물회, 전복죽 등을 각 1인분씩 주문했다가 면박을 당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 속에서 주문을 받던 종업원은 “그렇게는

안 된다. (메뉴를) 통일하라. 분식집이 아니다”고 응대했다. 이에 유튜브 측은 “그러면 그냥 나가겠다”며 식당을 나왔다.

영상이 게시되자 댓글란에는 “여긴 분식집이 아니다”고 짹(면박) 주는 식당, 이게 맞느냐”, “2명 와서 7만 3000원 주문을 했는데 안 받아 주는 건, 무슨 오마카세집이나”, “장사하기 싫다는데 모두 안 가는 것으로 도와 주자”는 등 비판 댓글이 이어졌다.

영상이 게시된 다음날 한 누리꾼은 자신을 식당 주인의 딸이라고 소개하며 논란에 대해 사과하는 영상 댓글을 달았다. 댓글에는 “영상 속 여성분은 서빙을 도와주고 있는 종업원이다. 식당에 온 손님에게 무례하게 대한 점은 무조건 저희 잘못이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여행 유튜브 채널 ‘유난히 오늘’을 운영하는 유튜브가 맛집으로 알려진 여

수시 교통 B식당에서 휴대를 받았다는 영상을 게시해 ‘혼밥 면박’ 지적이 나왔다. 같은 달 SNS에는 불산음의 한 리조트형 호텔에서 투숙객에게 ‘겔레 수건’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고, 그 다음 달에는 교통의 한 장어 식당에서 반찬을 재사용한다는 의혹을 담은 영상이 여수시에 접수됐다.

한편 진도군은 지난 6일 “최근 일어난 음식점의 불친절 응대 사례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친절 문화·서비스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도군은 이달 중순부터 진도군외식업 지구와 함께 음식점 영업주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친절 운동(캠페인)을 하고 고객 응대 자세(매너), 청결한 위생 관리, 관광객 만족도 향상 등 교육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전남 당분간 늦더위

광주·전남에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온이 평년보다 올라가 늦더위를 보일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당분간 광주·전남 지역이 중국 북동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기온이 평년(아침최저기온 10~16도, 낮최고기온 23~25도)보다 최대 4도 안팎으로 오를 것”고 9일 예보했다.

10일 아침 최저기온은 15~19도, 낮 최고기온은 24~28도를 보이고, 11일 아침 최저기온은 17~20도, 낮 최고기온은 27~29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말에도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는 등 다소 더울 전망이다.

오는 13일부터는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서해상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차차 흐려지고, 14~15일 이틀간에는 광주·전남 전역에 비가 내리겠다. 비가 내리면서 낮최고기온도 24~26도로 평년 수준을 되찾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화재 중단’ 정부 전산시스템 647개 아닌 709개…복구율 27.2%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대전본원 화재로 중단된 정부 전산시스템이 당초 파악된 647개가 아닌 709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9일 중대본회의의 모두발언에서 “내부 관리시스템인 ‘엔탑스’ 복구로 전체 장애 시스템 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오늘 오전 6시 기준 전체 709개 중 193개 시스템이 복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전체 복구율은 27.2%다.

연휴 기간 중 54개 시스템이 추가로 정상화됐고, 온나라문서시스템·1365기부포털 등이 재가동됐다.

/연합뉴스



창고 매매·임대

대 지 920평
건 물 680평 (1·2층)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127-3
(도로변·육교옆)

문의 062.220.0513
010.3646.2701